

[바둑]

‘백담사 용호상박’ 구리가 웃었다

(古力)

이세돌 9단이 중국의 구리 9단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세돌은 지난 25일 강원도 인제 백담사에서 열린 제13회 LG배 세계기왕전 결승 3번기 2국에서 구리에게 172수 끝에 불쾌했다. 앞서 전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1국에서도 이세돌은 163수만에 돌을 거뒀다.

한국과 중국 랭킹 1위 신수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지만 이세돌이 너무 힘없이 무너졌다. 이로써 이세돌은 지난해와 2003년에 이어 3번째 이 대회 우승을 노렸지만 정상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냉정함을 찾지 못하고 범한 잘못이 실수가 패인이었다. 이세돌은 25일 경기 초반부터 중앙 세력을 두텁게 쌓았다. 특유의 날카로운 응수타진을 발판삼아 유리한 형세를 이끌어냈다. 초반 분위기는 이세돌의 우세가 점쳐졌다.

하지만 점심 식사 후 속개된 경기에서 이세돌은 이유 없는 난조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구리의 침착함이 돋보였다. 구리는 대마의 솜씨를 역외는 등 강수를 던졌다. 또 막판 구리의 대마가 두 집을 내면서 이세돌의 마지막 공격도 허망하게 마침표를 찍었다.

1국에서도 이세돌은 공돌여 쌓은 성이 무너지듯 대마가 요절나 승리를

중 구리 9단, 이세돌 연파 LG배 기왕전 우승 후지쓰배·도요타배 등 국제대회 4관왕 등극



이세돌(왼쪽) 9단이 지난 25일 한·중 랭킹 1위가 맞붙은 제13회 LG배 세계기왕전 결승에서 구리 9단에게 무릎을 꿇었다. (사이버오로 제공)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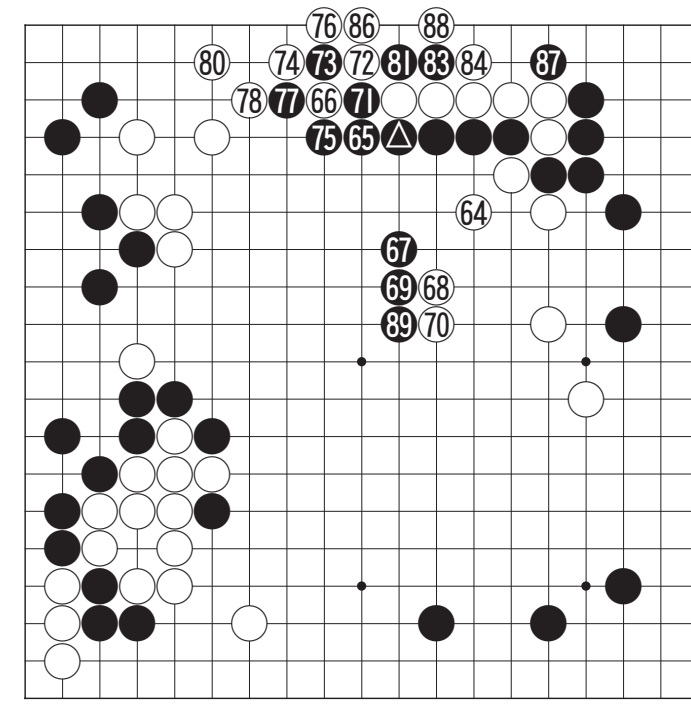
구리는 농심사리면배 3차전 패배 등 강수를 던졌다. 또 막판 구리의 대마가 두 집을 내면서 이세돌의 마지막 공격도 허망하게 마침표를 찍었다.

1국에서도 이세돌은 공돌여 쌓은 성이 무너지듯 대마가 요절나 승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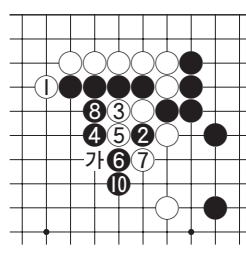
이뤄내지 못한 4관왕의 반열에 올라 중국 현대바둑사상 최고의 성과를 낸 기사가 됐다.

이 대회 제한시간은 각자 3시간에 초읽기 1분 5초. 상금은 우승 2억 5천만원, 준우승은 8천만원이다.

과거 마오호준 9단과 장하오 9단도



제5회 서구청장배 바둑대회



〈참고도〉

흑의 고민은 과연 ‘참고도’의 백 1로 첫힐 수 있는냐는 것이다. 이곳을 첫힐 수만 있다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한데 흑 2로 끊어놓을 때 곤란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흑 8까지 붙어있던 다음 10으로 늘 수가 있다는 것이다. 백이 ‘가’로 끊는 수가 교묘하게 흑이 성립되는 것이다.

‘절묘한 조여붙이기’

최강부 준결승 1국 5보 (64~89)

白 임상빈 6단 黑 정병우 6단

흑이 ▲로 밑에 오자 임상빈 6단이 장고를 들고 있다. 백의 고민은 과연 ‘참고도’의 백 1로 첫힐 수 있는냐는 것이다. 이곳을 첫힐 수만 있다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한데 흑 2로 끊어놓을 때 곤란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흑 8까지 붙어있던 다음 10으로 늘 수가 있다는 것이다. 백이 ‘가’로 끊는 수가 교묘하게 흑이 성립되는 것이다.

임상빈 6단이 65에 짓하지 못하고 백 64로 지킨다. 그러자 정병우 6단은 힘차게 흑 65로 늘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백 66이 또 실수였다. 임상빈 6단은 한집이라도 벌려고 버텼으나 정병우 6단이 흑 71로 뚫고 73으로 끊는 백집을 구사하여 87까지 선수로 조여붙이며 끝내기를 해버려서 임상빈의 인색이 붉게 물들고 있다. 백 66으로는 73에 날림자로 받아야 했다.

정병우 6단은 백집을 납작하게 찌그러뜨린 다음 유유히 흑 67로 탈출하자 이제까지 백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월간바둑 ‘통권 500호’ 발행

월간 ‘바둑’이 통권 500호를 발행했다. 월간 ‘바둑’은 한국기원(이사장 허승수) 등이 공동 발행하고 있는 바둑전문지이다.

지난 1967년 8월 ‘기계(棋界)’라는 이름으로 창간해 2년 후인 1969년 8월호부터 현재의 월간 ‘바둑’으로 재호로 바꿨다.

이번호에서는 한국 바둑의 역사도 특집으로 다뤘다. 김민희 주시자대부터 ‘고독한 황제’ 조훈현, 이창호-이창호의 10년 사제대결, 이창호-이세돌이 공존하는 현재의 바둑계를 다뤘다. 문의 02-2264-5447. /오광록기자 krah@

비씨카드배 ‘월드바둑챔피언십’ 본선 개막

프로 및 아마추어 기사가 모두 참가하는 ‘비씨카드 월드바둑챔피언십’ 본선이 28일 개막한다. 총 상금은 3억원.

지난 19일 끝난 온라인 예선전에는 무려 3천400여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아마에선전선을 통과한 20명의 아마 선수들과 한국(185명), 중국(38명), 일본(8명), 대만(6명)의 프로기사 등 총 257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통합예

선전(23~24일)에서는 이번이 속출했다.

한국바둑의 차세대 선두주자인 강유택 2단이 중국랭킹 2위 푼지에 7단을 격파했고, 조혜연 8단은 중국의 정상급 신예 구멍이 5단을 제쳐 파란을 일으켰다. 한국기원 연구생 유원재와 일반인 통과자 문병권은 각각 김민희 3단과 허미진 4단을 격파해 눈길을 끌었다. /오광록기자 krah@

제41기 결산공고



대차대조표

Table with financial data for POSCO, including items like '유동자산' (Current Assets) and '유동부채' (Current Liabilities) with corresponding amounts in Korean Won.

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 정준양

감사의견 : 위 대차대조표를 포함한 제41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본실 결산공고 접수안내

결산공고 접수안내. 2009년 3월 2일(종합 및 문제제이) 개강 3월 2일(종합 및 문제제이) 경찰 메가경찰학원

마사지 광주지점 시간제 경마직 채용

근무일: 금요일 1일 하루 근무. 급여: 2개월 수습기간 이후 52,000원(사대, 교통비 포함). 복지: 경조사비 지급, 1년 2회 상환권 지급.

고혈압치료제 임상시험 자원자 모집

혈압강화제 연구에 참여할 자원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질환: 만 18세~70세의 본태성 고혈압 환자로 임상부 또는 임상계획중인 여성 제외.

연구기관 연구참여기간

총 5~6회 병원 방문, 총 10주~11주 참여

참여자 혜택

임상시험을 위해 수행되는 모든 진찰비, 검사비, 임상약이 무료 제공되며, 소정의 교통비와 전자 혈압계 제공

경찰 메가경찰학원. 전역 및 경찰행정학과 특채/남·여 순경 공개. 개강 3월 2일(종합 및 문제제이). www.gmega.co.kr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 연설, 리더십, 설득력 향상과정. 자격증 취득. 스피치 지도사

경·공매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주)옥션코리아. 법무사 권숙원, 공인중개사 김갑순.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09-23번지 (법원경매 입찰장 앞)

Table with financial data for OK Group, including items like '소계지 대/인', '총자산', '총부채', and '순자산' with corresponding amounts in Korean Won.